

건국대 글로벌 캠퍼스 소프트웨어전공 4 학년이라는 상황에서 나를 한 번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라는 의미에서 SWOT 분석을 해 보았다.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의 내 위치를 그냥 감으로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강점과 약점, 그리고 앞으로 맡게 될 수 있는 기회와 조심해야 할 위험 요인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 싶었다. 단순히 “나는 이걸 잘한다, 이건 못 한다” 수준을 넘어서, 컴공 학생으로서 내가 쌓아온 경험과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연결해 보는 계기가 될 것 같다.

먼저 강점부터 생각해 보면, 꾸준함과 책임감 있는 태도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코딩 실력이나 알고리즘 실력만 보면 뛰어난 편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붙들고 어떻게든 마무리하려고 하는 스타일이다. 팀 프로젝트에서 맡은 기능 구현이 잘 안 풀릴 때도, 결국 해결될 때까지 구글링을 하고, 공식 문서를 찾아보고, 여러 시도를 해 보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편이다. 완성도가 항상 높은 건 아니더라도, “중간에 포기하고 손 놓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개발자로서 기본적인 끈기와 책임감은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강점은 협업 도구와 개발 환경에 익숙한 편이라는 점이다. Git, GitHub, 노션, 슬랙 같은 도구들을 팀플이나 스터디에서 실제로 사용해 본 경험이 있어서, 새로운 협업 환경에 들어가도 적응이 빠른 편이다. 이런 점은 회사에 가서도 팀에 섞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강점은 전공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접할 때 흥미를 느끼는 편이라는 점이다. 솔직히 말해서 모든 과목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특히 이론 위주의 과목은 버거울 때도 있지만, 새로운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를 접할 때 “이걸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를 떠올리는 걸 나름 즐긴다. 예를 들어 웹 개발을 하다가 백엔드 프레임워크를 바꿔 써 볼 기회가 생기면, 처음에는 귀찮아도 금방 구조를 이해하려고 소스 코드나 예제 프로젝트를 뜯어보게 된다. 이처럼 기술 변화에 거부감이 심하지 않고, 배운 걸 실제로 써 보고 싶어 하는 성향은 개발자로서의 성장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반면 약점을 생각해 보면, 자기 관리와 기초 실력의 불균형이 가장 큰 문제라고 느낀다. 한 번 집중이 되면 오래 붙들고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상태에 들어가기까지가 오래 걸리고,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공부 시간과 효율이 크게 왔다 갔다 한다. 시험이나 과제 마감이 다가오면 몰아서 하는 스타일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밀고 나가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건 개발자에게 중요한 “지속적인 학습”이라는 면에서 큰 약점이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약점은 전공 기초 이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운영체제, 네트워크, 알고리즘 같은 과목을 공부할 때, 시험을 위한 공부는 했지만, 끝나고 나면 개념이 머릿속에 흐릿하게 남아 있는 느낌이 강하다. 그래서 코딩 테스트 문제를 풀거나, 네트워크 관련 설정을 건드릴 때, “내가 이걸 정말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의심이 들 때가 많다. 발표나 표현력 측면에서도 약점이 있다.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내용은 준비해 가지만, 말투가 딱딱해지고 표정이 굳어지는 편이라,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다. 팀원들과 소규모로 얘기할 때는 괜찮은데, 많은 사람 앞에서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앞으로 회사에 들어가면 개발자라고 해도 자기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순간이 올 텐데, 이런 부분은 분명 약점이 될 수 있다.

기회 측면에서 보면, 우선 IT 업계 자체가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한다. 웹, 앱, 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나처럼 아직 특정 분야에 깊게 꽂히지는 않았지만, 여러 분야를 조금씩 경험해 본 사람에게는 오히려 방향을 새로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학교에서 제공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같은 제도도 기회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기업과 연계된 프로젝트를 해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포트폴리오나 경력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졸업까지 남은 기간 동안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내 강점을 더 명확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사례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또 요즘은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 강의나 자료가 정말 많아서, 학교 수업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것도 큰 기회다. 해외 개발자 커뮤니티나 깃허브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마음만 먹으면 참여할 수 있는 시대라, 영어와 실력이 어느 정도만 받쳐준다면 학교 밖에서 더 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런 환경 덕분에, 내 약점으로 남아 있는 기초 이론이나 알고리즘 실력도,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공부한다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위협 요인을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경쟁자들이다. 같은 학년, 같은 전공 친구들만 봐도 이미 실무 경험이 있거나, 대회 수상 경력이 있거나, 코딩 테스트를 술술 푸는 친구들이 꽤 있다. 거기에 다른 학교, 특히 상위권 대학 학생들까지 고려하면, 취업 시장에서 내가 가진 스펙과 포트폴리오가 상대적으로 평범하게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현실은 나에게 압박감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또한 IT 기술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도 위협 요인이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기술이 몇 년 뒤에는 구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가끔은 “내가 과연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든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위협도 있다. 앞서 약점에서 언급한 자기 관리 문제와 기초 부족이, 지금은 그냥 “습관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면 실제 커리어에 치명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중요한 일을 이루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회사 프로젝트 마감이나 코드 품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그때는 단순히 나 혼자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발표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크게 개선하지 못한다면, 기술적인 역량이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중요한 역할을 맡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정리해 보면, 나는 책임감 있고 꾸준히 파고드는 성향, 협업 도구와 개발 환경에 대한 친숙함, 새로운 기술에 대한 흥미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자기 관리의 부족, 전공 기초에 대한 자신감 부족, 표현력과 발표력 부족이라는 약점을 안고 있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IT 분야와 학교·온라인에서 제공되는 학습 기회가 열려 있는 환경에 놓여 있지만, 동시에 실력 있는 경쟁자들과 빠르게 변하는 기술 트렌드, 그리고 내가 가진 습관적인 문제들이 위협 요인으로 존재한다. 이번 SWOT 분석을 통해 느낀 점은, 결국 강점은 더 살리고 약점은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남들과 비교해서 불안해하기보다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씩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하루에 알고리즘 문제를 한 문제라도 꾸준히 풀어 본다든지, 한 학기 동안 발표를 일부러 한 번 더 맡아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작은 실천을 쌓아가면, 지금의 SWOT 분석도 몇 년 뒤에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 있을 거라고 믿고 싶다.